탁틴스쿨'와~'성교육 전시관 매뉴얼

■ 탁틴스쿨 '와~' 성교육 체험관은..

생명과 사랑, 성 인권, 양성평등에 기반 하여 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 올바른 성 지식과 성 가치관을 점검해 보고, 인간존중과 성 자주권을 갖게 한다.

■ 성교육 체험관의 방향 - 양성평등 (한 인간으로서의 나)

1. 나 - 가정 - 사회로 연결된 성 인식의 확산
2. 인권으로서의 성교육
3. 출산에서부터 사춘기 - 청년기 -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 성교육

▪ 세부 목표
- 자아존중 감 형성 (자기주장 훈련)
- 더불어 사는 우리 (개인차의 인정, 소수자의 인권)
- 타인과의 의사소통 (자기주장훈련)
- 몸에 대한 이해 (사춘기 몸 변화, 임신, 출산, 피임)
- 성적 위험에 대한 대처 (성폭력, 사이버음란물, 스팸메일 등)
- 나의 소중함 알기

■ 체험관의 구성

1. 제 1체험관 (2층)

<table>
<tr><td rowspan="2">이성교제
방</td><td>노트북
음향</td><td colspan="2">스크린</td><td rowspan="2">낙태
피임
성병</td></tr>
<tr><td>판
넬
및
인
형</td><td colspan="2">테이블</td><td>판
넬
및
생
리
대</td></tr>
<tr><td rowspan="2">생명 방</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성폭력
성매매
사이버</td></tr>
<tr><td colspan="2">게시판</td><td>출입구</td><td>화장실</td></tr>
</table>

2. 제 2체험관 (지하1층)

<table>
<tr><td>창고입구</td><td colspan="2"></td><td>컴퓨터</td><td colspan="2">책상</td><td></td></tr>
<tr><td rowspan="2">음향기기 및
책상, 의자</td><td></td><td colspan="4">롤 스크린</td><td rowspan="2">스
크
린
&
보
드</td></tr>
<tr><td rowspan="2">역할극
무대</td><td rowspan="2">롤
스
크
린</td><td colspan="4" rowspan="2">교 육 장</td></tr>
<tr><td>방음 방</td><td colspan="2">거울 방</td><td>세포분열
자궁변화
모형</td><td>입구</td><td>자궁 방</td><td>나의 삶/생명/사랑/성숙
판넬</td></tr>
</table>

■ 교육자료

1) 영상자료 - 탁틴스쿨 '와~' 성교육 CD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자체 제작된 다양한 영상물을 활용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장애인성교육에 따른 사춘기 몸 변화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과 어떻게 자신이 태어났는지 수정부터 알기 쉽게 표현된 수정 애니메이션,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을 다룬 소년/소녀를 만나다. 장애인 성교육에 사용률이 높은 성폭력 예방법, 초등학생 성교육에 사용률이 높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폭력 알아보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시 남녀의 서로 다른 성심리를 다른 키스비디오와 비디오방에서 생긴 일,, 성매매예방 애니메이션인 송이의 외출 등, 각각의 대상과 주제에 맞추어 영상물이 제작되어 있다.

■ 코너별 관람 내용

1. 지하 체험관 '나를 찾아서'

'나를 찾아서' 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 공간은 우선 탁 트인 공간에 마음을 편히 열고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하체험관은 각 공간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져보고 소리 질러보고 표현하고 느껴볼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마련되어 있다.

1) 섹슈얼리티 - '성'이란 무엇인가?

내용

Sexuality와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영상물을 보여준 후,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영상물을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느낌을 이야기하고 '성'하면 떠오르는 것도 함께 이야기한다.

세부내용

인사를 나눈 후 영상물(What is sexuality?)을 보여준다.
영상물을 본 후 이야기를 나눌 것이므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씩 생각해 둘 것을 미리 이야기해준다.
영상물을 본 후 기억에 남는 장면도 좋고 '성'하면 떠오르는 것도 좋고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
사진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하여 꽃 모양을 만든다.
이처럼 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애 전 과정에 항상 존재하고 다양한 조각(크게 성정체성, 성적 감각성, 성적 친밀감, 성 건강과 생식, 성적 사회화 등으로 분류)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섹슈얼리티(성)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섹슈얼리티가 모두 다름을 알고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한다.

[진행자 정보]

★ 주요 단어 정의

* sex
성별과 성행위를 의미하는데 원래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 즉, 구체적인 해부학적 기준으로 한 생물학적인 남녀 구분을 말함.

* gender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성을 말하며 '만들어지는 성'이라고도 하며 삶의 방식, 정체성, 사회의 규범, 가치관,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기대, 사회의 고정관념 등에 의해서 구성되고 학습되어지는 성을 말함

* sexuality
성행위(the sex acts)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실천과 정체성, 에로틱한 욕망을 포함하여 성적 감정과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성적(sexual)이라고 규정하는 범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성애란 성적욕망을 창조하고 구성하고 표현하며 추구하는 사회적 과정이며 성역할, 성행위, 성적 감수성, 성적지향, 성적환상과 정체성을 정의하고 생산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즉 이 개념은 여성과 남성들의 감정, 사상, 행동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성적인 친밀감과 육체적인 성행동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삶의 과정을 포함한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구성요소를 5가지(성정체성, 성적 감각성, 성적 친밀감, 성 건강과 생식, 성적 사회화)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

★ SEXUALITY의 5가지 구성요소

섹슈얼리티에 대한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5가지(성정체성, 성적 감각성, 성적 친밀감, 성 건강과 생식, 성적 사회화)로 나눠서 이해하고자 한다.

* 성적 정체성
성정체성이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성 발달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다. 성 발달은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인지적 성장에 의해 특징 지

워진다.
사람들과의 관계, 여가 생활, 교육, 직업 등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성정체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성적 감각성**

자기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향유(enjoyment)로서 성적 느낌, 성 반응, 다양한 성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움, 편안함을 체득한다. 우리 몸의 느낌과 우리의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한다.

*** 성적 친밀성**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애착이나 교제(이성, 동성)를 하는 것은 친밀감의 표시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나 욕구로서 사람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친밀감을 나누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 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성교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고도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 아주 성숙되고 낭만적인 애정관계에서 성의 표현은 친밀감과 성교를 포함한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의사소통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성경험이 청소년들에게 한 부분으로 항상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 관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상대에 대한 애정과 배려,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자기표현과 의사소통, 인간존중의 태도를 세우는 데 있다.

*** 성적 건강과 생식**

성관계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과 태도들에 관한 것이다.
아이양육, 생식기관과 성관계, 성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들에 관한 것으로 남녀 몸의 이해와 관리, 건강법을 알아야 한다.

*** 성적 사회화**

사회문화적 환경들은 개인들이 성을 배우고 표현하는데 영향을 준다. 사회 속의 성문화를 민감하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이 폭력적으로 도구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몸의 주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관점 및 태도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도구화란 피해가 없는 속임수로부터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가해 행위까지를 포함. 희롱, 유혹, 파트너를 벌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성적 학대, 강간과 같은 행동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며 속이기 위해

성을 이용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2) 생식기 명칭과 기능

내용

유치부, 초등 저학년, 장애 학생의 경우는 부직포 신체 인형을 이용하고 비장애 초등 고학년부터는 생식기 모형을 이용하여 정확한 명칭과 기능을 설명한다.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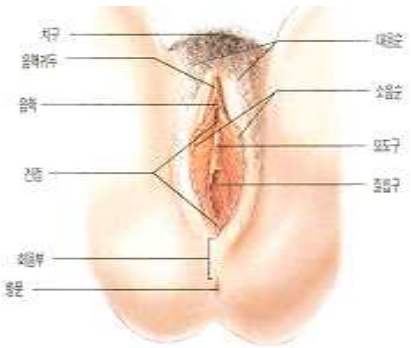
남성 생식기 - 남성 생식기의 명칭은 음경, 고환이다.
고환에서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부고환으로 들어가 성숙이 된다. 그리고 성숙된 정자는 남자가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 정액과 함께 정관을 통해 음경으로 나가게 된다. 음경으로는 소변과 정액이 나오는데 소변과 정액은 절대 함께 나오지 않는다.
남성의 생식기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체온보다 1~2℃ 정도 낮아야 정자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조이는 속옷이나 바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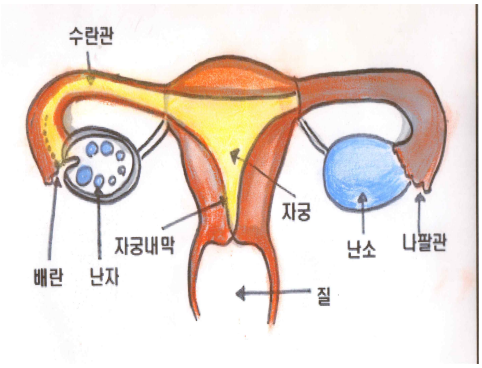
여성 생식기 - 여성의 생식기의 명칭은 자궁, 질, 음순이다.
자궁의 좌우에 있는 난소에서 매달 번갈아 하나씩의 난자가 나오게 되고 이 난자가 정자와 만나게 되면 임신이 되는 것이다.
난자가 나올 때에는 자궁벽에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준비된 자궁내막이 난자와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 월경이다.
여성의 생식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따뜻해야 난자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남녀 모두 생식기가 있는 곳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므로 함부로 때리거나 만지지 않고 소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이 자궁의 위치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도록 한다.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펴고 그 손을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배꼽 밑에 아랫배에 갖다 대고 그대로 몸속에 쑥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주먹보다 약

간 작은 크기로 자궁이 위치하고 있다.
이 자궁 안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갈 것이다.

[진행자 정보]

★ 여성 생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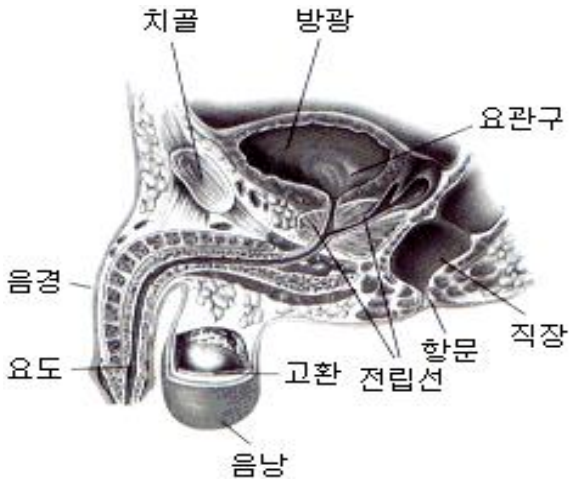
생식기명		설명
외생식기	치구	일명 불두덩이로 외부생식기 중 가장 표면에 있고 사춘기 후에는 치모가 생긴다.
	질 전정	소음순을 벌렸을 때 오목하고 편편한 곳으로 질구, 요도구, 스킨샘, 2개의 바토린샘을 포함한다.
	대음순	여성 생식기의 가장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구에서 회음부까지 뻗은 있는 두꺼운 주름이며 지방조직이 많고 결합조직으로 되어 있고 상부와 주위에는 음모가 나 있습니다.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서 색소의 착색이 된다.
	음핵	외음부 상단에, 요도 위에 위치하는 원통형의 기관으로 남성의 음경에 해당한다. 미감한 곳으로 많은 감각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어 마찰에 의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며, 성적 흥분시 발기된다.
	소음순	대음순보다 얇고 작은 주름조직으로 질구와 요도를 감싸고 있는 기관으로 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성적인 민감도가 높고 개인에 따라 성적 흥분에 따라 붉어진다.
	요도구	소변이 나오는 요도의 입구 위에서부터 음핵-요도구-항문 순으로 위치한다.
	질구	질입구막으로 덮혀 있다. 질입구막 (질주름) 질의 입구에 위치하고 엷은 결합조직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막은 월경 혈이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손가락을 넣을 수도 있는 질 하단의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

		양과 두께는 개인마다 각기 다르며 문화에 따라서는 여자의 순결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성지식 중의 하나입니다. 질 입구막은 성교 외에 심한 운동이나 탐폰 사용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손상되기도 한다.
	바르톨린샘	질 바로 밑에 있는 2개의 분비기관으로 성적인 자극이 있는 동안 다량의 알카리성 점액이 나와 정자가 활동하기 좋게 해주고 성교를 원활하게 하게끔 도와준다. 임균 감염 시 임균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므로 많이 부어오를 수 있다.
내생식기	**질**	질은 직장의 앞쪽에 있으며, 요도와 방광의 뒤쪽에 있는 9-10cm의 관으로 으로 월경을 할 때 혈액이 유출되거나 또한 성교를 통해 정자가 들어가는 통로이며, 출산 시 태아가 나오는 출구의 역할을 한다. 질구는 질의 아래쪽 입구로 요도구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질점막은 산성(pH3-4)을 유지하며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입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질 내 정상 세균인 네덜라인간균이 질 상피세포에 나오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유산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궁	서양 배 모양의 두꺼운 막으로 된 근육기관으로 질구의 상단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정란이 착상하여 자라는 곳으로 모양은 서양 배와 같이 생겼다. 자궁은 보통 세로 5cm, 가로 길이는 7.6cm로 되어 있으나, 임신이 되면 30-40배(500배까지 가능 함)로 커지며, 수정란이 자리 잡아 임신기간인 280일 동안 태아가 성장하는 곳 이다.
	난관	자궁과 난소를 연결해 주고 있으며, 성숙된 난소나 정자, 수정란들이 이동하는 1-2mm정도의 통로로 이루어져 있다. 자궁에서 좌, 우로 뻗어 있는 난관은 나팔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나팔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난소	자궁의 양쪽에 위치하며, 남성의 고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난포 세포(20-40만)의 성숙과 성숙한 난자의 배란을 통한 생식기능과 여성의 2차 성징 발현과 정상 생리현상을 조절하는 성호르몬 분비기능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유방**

유선(유방)은 모유를 분비 생산하는 부위와 유두로 연결되는 관과 그 사이의 지방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사춘기에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 유방내의 선 조직들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유방은 모유를 분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 여성의 중요한 성감대 역할을 한다. 유방의 크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생리주기나 피임약의 복용, 임신 등에 따라 유방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진다. 겉으로 나타나는 유방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유선조직 사이에 분포하는 지방 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남성 생식기



외부생식기	음경	3개의 특수조직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2개의 음경해면체와 하나의 요도해면체로 구성 되어 있고 뿌리는 현수인대에 의해 치골에 고정되어 있다. 나란히 있는 2개의 음경해면체는 요도해면체를 감싸고 있고 끝부분은 모자모양의 귀두가 있다. 귀두를 감싸는 피부를 음경포피라고 하며 귀두 아래에서 요도부분을 감싸는 부분을 음경소대라고 한다. 요도를 통해서는 소변과 정액이 밖으로 배출된다.
	음낭	고환, 부고환을 보호하는 주머니로 음낭벽은 온도에 민감하여 쭈글쭈글한 표면은 수축, 이완을 통해 온도 (체온보다2-3도 낮게)를 유지해 준다.
내부생식기	고환	한 쌍으로 각 각 작은 계란만한 크기로 무게 10g정도인데 주요기능은 정자 발육과 생산 및 남성호르몬분비이다. 고환은 태생기에 상복부에 위치하다가 태생3개월에 골반내로 내려오며 태생7개월에 서혜관을 통해 태생9개월에는 음낭에 도달하여 출생 시에는 음낭에서 만져진다.
	부고환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를 성숙시키고 저장하며 정관절제술 시 배출되지 못한 정자를 흡수합니다. 육안으로 5센티 정도 되어 보이는데 펴면 6미터의 가는 관이다.
	쿠퍼선	윤활점액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쿠퍼씨액은 사정하기 전 배출되어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것 뿐 만 아니라 질 내를 알카리성으로 유지 해 줌으로 정자가 질을 잘 통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낭	전립선사정관으로 연결되는 작은 주머니로 정자가 밖으로 나올 때 활동력과 영양을 공급해 주는 분비물을 생산합니다. 정액의 2/3차지한다.

	정관	부고환과 전립선사정관을 연결하는 30센티미터 정도의 정자 통로이다.
	전립선	정낭과 같이 정액을 만드는 곳으로 약1/3을 만든다. 전립선 분비물은 여성 생식관내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질 액의 pH는 3.5-4.0인데, 정자는 pH6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동함). 2개의 요도구선은 남성이 성적 흥분 시 점액이 풍부한 액을 요도로 조금 분비된다.

*** 정액의 구성**

정액은 침과 마찬가지로 각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범죄 밝히는데 이용)

정 액	
구성	정자 (2%) + 정낭액 (60%) + 전립선액 (38%) 정자는 편모가 달린 세포로, 머리 부분과 중심에 미세소관으로 된 긴 꼬리로 구성된다. 머리 부분 뒤에 중간부의 미토콘드리아는 정자의 채찍 같은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각 정자의 형성은 9-10주가 소요 된다.
색깔	맑은 우유 색에서 약간 노란색
냄새	밤꽃냄새와 비슷한 비린내
형태	5분 이내-젤과 같은 상태입니다. (코 풀어 놓은 것처럼 응고) 20-30분 후 - 물처럼 용해 (용해되지 않으면 정자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불임의 원인이 된다.)
용량	사정의 횟수나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약5일 정도 사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ml 이상이면 정상이다.

*** 성기능**

발기	성적흥분을 일으키는 심적 자극을 받거나 애무에 의해 외생식기에 자극을 받아 음경동맥이 능동적으로 확장되고 평상시의 4-10배 많은 혈액이 음경내로 유입되여 음경이 팽창되고 단단하게 되고 혈액이 갇힘으로 완전발기가 이뤄진다. * 심인성발기

	* 수면 중 발기
사정	정액이 사정관을 통해 요도로 압출되고 회음부 근육의 수축에 의해 요도에 고여 있던 정액이 요도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조루	사정 능력에 문제가 있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사정을 하는 현상. * 질내 체류시간이 1-2분 미만일 때 * 피스톤 왕복운동횟수가 10-15회 미만일 때 * 상대가 오르가즘을 느끼기 전 사정하는 횟수가 시도한 성교 횟수의 50%를 넘을 때 *원인 : 기질적원인 심인성 원인

3) 자궁 방 : 엄마의 자궁 안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 체험하기

내용

자궁 방은 자신을 찾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며, 탯줄로 연결된 난황과 붉은 벨벳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엄마의 뱃속 자궁에서 태어났고 그 곳의 느낌이 어떤지 느껴본다.

- 자궁 방 체험하기 (안내멘트)

입장 전
“지금부터 우리는 태어나기 전의 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네~ 엄마의 자궁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럼 우리 엄마의 자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주먹 쥐고, 엄지와 새끼손가락 펴고, 배꼽 밑에 대 보기) 그럼 자궁 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 후
“지금 이곳에 들어온 느낌이 어때요?(한 명씩 느낌을 이야기해본다) 지금 이곳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푹신푹신한 것처럼 엄마의 자궁 안이 그런 느낌이예요. 바닥에 있는 이 쿠션은 자궁안의 양수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쿠션이 있어서 여러분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양수

속에서 여러분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10달 동안 있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을 가졌을 때 엄마의 기분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엄마의 자궁 속에 아빠의 수 억 마리의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은 아주 작은 점만 한 크기예요. 조금씩 자라면서 임신 초기 엄마는 입덧을 하면서도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의 심장을 느끼고, 또 발로 차는 느낌을 느끼고..... 엄마는 그 때 무척 행복했으리라고 생각 되요. 그럼 또 아빠는 어땠을 까요? 엄마의 볼록한 배에 귀도 대보고 손으로 쓰다듬어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책도 읽어 주셨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야기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10달 동안이나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을 키워 오셨겠죠?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태어날 때 엄마가 어느 정도의 힘을 주어 여러분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하늘이 노래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고 여러분을 낳습니다. 또 여러분은 엄마가 힘든 정도의 10배의 힘을 주어 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을 느껴 보면서 편안한 엄마의 자궁 안을 체험하기로 해요.”

4) 나의 몸, 마주하는 공간 (거울 방) : 나의 몸,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내용

거울 방은 자신을 사회의 매스컴이 유도하는 남자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써의 길들여진 내가 아닌 실제 자신의 전신을 바라보면서 한명씩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이다.

세부내용

- 몸 이미지 그림 보기(안내멘트)

“여기에 어떤 그림들이 있죠?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건장한 사람, 마른 사람, 흑인, 백인, 황인, 아기,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장애인, 비장애인,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배가 나온 사람, 홀쭉한 사람 등이 있어요. 옆의 친구들도 한 번씩 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르게 생겼고 다른 것은 차이일 뿐이죠. 이 세상의 60억 인구가 모두 다 다른 얼굴, 다른 피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꼭! 하나뿐인 존재들 이예요. 세상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1/2억의 확률)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외모를 보고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알아야겠죠.

- 거울 방 체험하기 (안내멘트)

“이제 거울 방에서 내 모습을 볼 거예요. 한번이라도 자신의 전신을 360도 사방(전신)으로 살펴본 적 있나요? ~ 오늘 아침에는 거울을 보고 왔나요? 거울을 볼 때 어디를 봤나요? 얼굴, 머리 아니면 다른 곳은 잘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방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거짓 없이 바라보고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듯이 타인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어야겠죠. 사춘기 때, ‘뚱뚱해요’, ‘키가 작아요.’, ‘못 생겼어요.....’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맘에 들지 않는 모습도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 할 수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조금 더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한 명씩 거울 방에 들어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몸의 구석구석을 보고 나올 거예요. 들어가서 내 몸의 가장 자신 있는 곳과 자신 없는 곳을 찾아보고 나올 건데요 맘에 들지 않는 곳도 바로 내 모습이니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정보]

★ 성 상품화의 정의

성 상품화란, 인간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해 서 돈을 벌기 위해 인간의 성을 상품으로 파는 행위를 말하며, 직접적인 매춘뿐 아니라 암시를 담은 내용도 포함된다. 성 상품화는 주로 남성 고객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시켜서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
성 상품화는 '포르노(음란물)'와 '광고'를 통해 주변에서 흔히 접하며,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영역이라 하겠다.

★ 광고

- 광고는 15~30초 내에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 상품을 가장 강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소재를 등장시켜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사고 싶은 욕구와 상품에 대한 생각을 주입시킨다.
- 광고에 많은 소재들이 등장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성을 상품과 연관시켜 나타낸다.

* 광고의 영향

- 속옷 광고의 경우, 기능을 전달하기보다 속옷을 착용하고 나오는 모델과 연관시켜서 제품의 이미지 전달하고자한다.
- 자동차, 식품 등은 제품과 전혀 관계없는 단순히 광고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 가전제품이나 유아용품, 학습지 등은 주로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성 역할이 고정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 외모 지상주의

-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공하는 데 외모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을 시도한 결과, 부작용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 외모 지상주의의 부작용

- 또 고쳤어?… 연예인 성형 '과열 주의보'
- 과다 출혈 등 사고 잇따라… 소송도
- "다 똑같은 얼굴 식상" 실력 키워야

중앙일보(2007. 11. 21.)

5) 내 안의 나와 이야기하는 공간 (방음 방) :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내용

방음 방은 자신을 둘러싼 억압의 목소리들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느낀 대로 표출할 수 있는 곳으로, 평소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들을 주변의 제재 없이 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부내용

- 방음 방 체험하기 (안내멘트)

"이 방은 방음 방 이예요. 스스로에게 말을 전할 수도 있구요.(다짐, 계획) 나 자신을 칭찬해 주어도 좋아요. 아니면 주위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 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마음에 품어 놓은 얘기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해 보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 하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서 연습해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소리를 질러 스트레스를 풀고 나와도 좋아요."

6) 역할극 무대 - '나'를 표현하는 공간

내용

이 공간은 다양한 역할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역할극을 해 봄으로써 주위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자신도 몰랐던 나의 마음을 알아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마음속에 일었던 갈등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고, 갈등을 해결 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극에 직접 출연 해 봄으로써 참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1회성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하지 않고 다회성 교육이거나 장애인 교육일 때 주로 사용된다. 성폭력 상황을 역할극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재연해봄으로써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비 장애 청소년들은 이곳 에서 가발이나 가면을 쓰고 사진을 찍어봄으로써 자신을 표현해보도록 한다.

7) 롤스크린

내용

몸 이미지, 상품화된 성, 성적 자기 결정권, 데이트 성폭력, 군대 내 성폭력, 성매매 등의 주제별로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롤스크린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각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자신을 만들고 있는 여러 문화들과 환경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롤스크린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한다.

2. 2층 체험관

1) 생애주기별 인형

내용

생애주기에 따른 성장 인형을 구비하여 성이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춘기 몸 변화를 표현한 인형을 활용하여 언어적인 소통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장애 청소년들이 사춘기 몸 변화 및 위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2) 생리, 몽정, 자위

내용

생리와 몽정, 자위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실사 판넬로 되어 있다. 생리주기, 생리 처리법, 몽정의 뜻, 몽정 처리법, 자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자위 에티켓이 적혀있고 생리대의 종류별로 실물이 준비되어있다. 만들어서 쓰는 대안생리대, 팬텀, 크기별 생리대 등이 있다.

[진행자 정보]

★ 배란과 월경

월경 전 증후군	젊은 여성의 약 1/3정도가 월경을 시작하기 전 1주일-10일 동안 피로, 요통, 복통, 안절부절, 정서적 불안, 긴장, 우울 및 몸이 붓거나 유방이 팽창되는 등의 증세를 나타내며, 이들 중 10%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받을 정도로 심한 증세를 호소하기도 한다(노명래, 1998).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월경 전에 나타나는 증세들을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한다. 월경 전 증후군은 개인에 따라 정신적 측면, 행동적인 변화, 그리고 신체적 변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정신적 측면 : 죄의식, 수치감 등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지고, 특히 청소년기소녀들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심리적 갈등을 신체적 증세로 호소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불안정, 주의집중력 저하, 우울, 무기력감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 행동적 변화 : 비능률적인 사회생활,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와 행동 및 활동수준의 변화 등이 있다. * 신체적 변화 : 수면장애, 두통, 변비, 복부 팽만, 요통, 유방의 통증, 체중변화, 구토 및 알레르기 증세 등이 나타난다. * 개인에 따라서는 기분이 좋아지거나 몸을 움직이고 싶기도 한다.
월경이 일어나는 과정	난소에서 성숙된 난자는 난소의 표면이 터지면서 배출되는데 이를 '배란'이라고 한다. 난자는 대개 한 달에 1번 1개(혹은 2개)씩 배출되며, 배출된 난자는 나팔관 끝에 있는 난관채를 통해 나팔관으로 들어간다. 배란이 될 시기에는 난포 호르몬의 작용으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데, 나팔관에 들어간 수정란이 자궁을 향해 여행을 시작할 때 자궁 내막은 더욱 두꺼워진다. 자궁 내막은 폭신한 이불을 깔아 놓은 듯이 두꺼워져서, 수정된 난자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그러나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자궁내막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자궁내막의 부분이 자궁벽에서 탈락하여 조금씩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를 바로 월경이라고 한다. 월경의 양은 20-60ml로 평균 33ml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월경의 주기	월경의 주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 28일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일로 혹은 그 이상의 간격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월경을 하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일간에서 7일간으로 다양하며, 보통 2일째나 3일째가 생리 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엔 점차 줄어든다. 사춘기에는 난포의 성숙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배란이 없이도 월경이 일어날 수 있으며, 생활의 변화와 심리적 영향으로 주기가 규칙적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여 지나친 불안과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월경중의 건강관리	여성은 남성보다 약 75% 정도의 아포크린선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월경 중 보통 때보다 더 적극적인 활성화 작용으로 몸의 수분, 염분, 유산 등을 포함한 외분비물을 배출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노명래, 1998). 그러나 이러한 분비물을 규칙적으로 씻어주지 않으면, 불쾌한 냄새가 나고 이 냄새는 불쾌하고 여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팬티스타킹이나 몸에 꼭 끼는 거들과 같은 내의는 통풍을 방해하여 냄새가 더 날 수 있다. 따라서 월경 시에서는 샤워나 가벼운 목욕을 하거나, 생리대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등 청결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생리 중에는 심신이 피곤하기 쉬우므로 과로나 정신적 긴장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심한 운동을 삼가도록 한다. 또한 변비가 잘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므로 물을 많이 마시고, 과일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월경 장애	* 무월경: 원발성 후발성 * 월경과다 : 월경이 7-8일 계속되거나 실혈 80-100ml이상 * 과소월경 : 규칙적이지만 기간이 1-2일로 짧고 양이 적은 경우 월경주기가 17-20일로 짧으면 무 배란을 암시한다.
월경 중 성관계	평상시 자궁입구는 닫혀 있어 질 안에 균이 들어가도 자궁을 지나 골반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생리 중에는 약간 열려 있다. 평소 질 내는 약산성을 유지하여 좋지 않은 균의 번식을 억

	제하나 월경 중에는 알칼리성 혈액이 채워져 균이 자랄 수 있다. 질 내 고인 혈액은 균의 영양을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월경 중 성관계에 대해 임신될 가능성을 묻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때 임신될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자궁 내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관계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정과 몽정

* 사정

사정이란 음경에서 정액이 사출되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오르가즘에 달할 때마다 3~6회 정도 정액을 사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1회 사정할 때 보통 2~3ml의 정액을 사정하는데, 1ml당 약7,000만 마리의 정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번 사정된 정액 속에는 1억 4,000만에서 2억 1,000만 마리의 정자가 정소로부터 생산 배출되어 나오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사정은 음경체부와 귀두를 격렬하게 비벼댐으로써 생기는 접촉감(마찰감)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이 유발에 필요한 마찰감의 양은 개인에 따라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남성이 그저 성적으로 흥분되고 싶지 않거나, 진정제를 복용하거나 심리적으로 억압되거나 갈등이 있을 때에는 발기되기가 힘들다. 한편 매우 흥분되기 쉬운 젊은 남성의 경우는 가벼운 접촉(팬티나 속바지)이나 아름다운 여성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느닷없이 발기되어 사정되는 때가 있다. 이와 같은 무의식적인 사정이 지나쳐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될 때 조루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교 시 조루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조루증 환자라고는 할 수 없다.

사정은 두 단계 즉 내부생식기(정관, 정낭, 전립선)의 수축 단계와 요도해면체의 구상부와 두 개의 음경해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횡문근의 강력한 수축 단계 등 두 가지 수축단계로 진행되는데, 오르가즘 시 최고의 절정감이 수반되는 것은 바로 이 강력한 제 2단계이다.

남성은 사정 후, 그 이상 자극해도 반응하지 않는 절대 무 반응기를 짧은 순간 갖는데, 이 현상은 남성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오르가즘의 사정전 단계와 관계가 있으며 연령과도 관계가 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액의 사출횟수는 줄지만, 발기능력은 비교적 장애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노인(70세 내외)이라도 일주일에 몇 차례라도 성교를 즐길 수 있고 그 때마다 페니스를 발기시킬 수도 있다.

*** 몽정**

몽정은 일종의 사정으로서,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정액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몽정은 대개 남자 나이 12~14세 사이에 하게 되는데, 이 연령에 달하기 전에 미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아들에게 말해두는 것이 좋다. 남자는 누구나 사춘기가 되면 몽정을 하기 시작하며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며 아무런 해가 없는 것임을 알려 주어야 된다. 그런 사전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당하면, 죄악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몽정을 사춘기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주기적으로 하는 어른도 있다.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 중에서도 거의 매일 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 주간, 수 개월간, 수 년 간의 간격으로 몽정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몽정을 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개 성몽(性夢)을 꾸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몽 시에는 페니스는 자극이 안 되어도 발기되고 사정하면서 오르가즘도 느끼게 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어떤 때는 꿈도 오르가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 성몽을 꾸고 난 후이든 전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든 몽정을 한 증거는 자기도 모르게 정액이 흘러나와 팬티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사실이다. 몽정을 하고 팬티를 감추며 겸연쩍어 하는 아들에게 너무 무안을 준다든가, 창피를 준다든가 하는 어머니는 현명하지 않다. 오히려 몽정을 조용히 처리해주고, 남성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생리적 현상임을 차분히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

평소 그다지 관심 없는 여자애가 꿈에 등장하거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성친구가 꿈에 등장해서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과 꿈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

*** 자위행위**

자위행위란 사전적 의미로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이다. 사춘기 성충동 해소의 적절한 방법으로 남학생의 80% 이상이 경험한다. 여학생 경험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자위행위의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다. 현기증이 일거나 무력감, 코피 쏟기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상관없다. 생물학적으로는 정액배출 후 정액성분이 원상복귀하는데 2~5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특히 십대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건 좋으나,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하도록 알려준다.

- 혼자만의 공간에서 문을 잠그고 할 것.

- 청결에 유의할 것.
- 남성의 경우 엎드려 하거나 딱딱한 곳에 성기를 대고 자위행위 하는 것은 음경 골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 여성의 경우 이물질을 삽입하면 질염 등 손상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주의할 것.
- 특히!! 음란물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주의할 것. (파트너와 성관계 시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인 관계로 연결 될 수 있다. 이는 만족스러운 성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절해서 할 것.

*** 포경수술**

남자 음경(성기)의 포피가 귀두를 덮고 있는데 이 포피를 제거하고 음경 귀두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포경수술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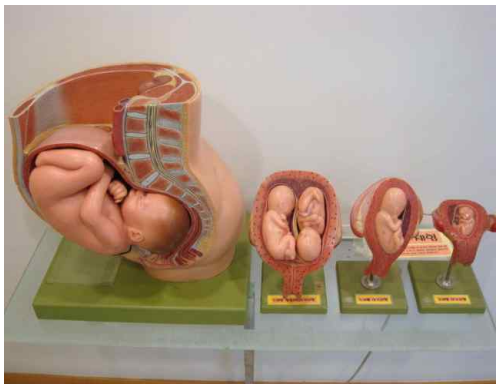
남성의 성기는 외피가 귀두를 덮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가성포경과 진성포경으로 나뉜다. 가성포경이란, 포피가 귀두를 덮고 있다가 발기하거나 손으로 잡아당기면 귀두가 노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분비물이 그 부위에 누적되어 불쾌한 냄새를 풍기거나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끔 포피를 벗기고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귀두부를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한다. 가성포경의 경우 대부분의 비뇨기과 의사들은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포경수술을 찬성하는 의사들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음경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암 및 각종 질병에 걸릴 우려가 많으므로 깨끗이 씻어 줘야 하고, 포경 수술을 하면 씻기가 수월하다는 이유로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진성포경이란, 포피가 귀두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발기가 되어도 포피가 당겨지지 않아 귀두부가 나오지 않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포피가 꽉 조이고 있으면 성기의 발육과 성교 시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변볼 때 소변이 거꾸로 흘러들어 신장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치구가 귀두에 고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포경수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진성포경은 전체 남성의 1%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 진성포경의 경우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포경수술은 문화에 따라서는 꼭 해야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나라도 있다. 포경수술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성기의 위생관리의 측면 등에서 포경수술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목욕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 위생관리는 하기 나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포경수술을 꼭 해야 한다. 혹은 말아야 한다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부분이 포경수술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남성들이 포경수술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포경수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 정립이 요구된다.

한편 포경수술이 성기능을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모든 남성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요즈음은 포경수술을 받는 것이 병을 예방하고 개인의 성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종교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수술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Nobile, 1986, 윤가현 1990년 재인용).

3) 생명 방



수정이 되고 난 후 1개월~10개월의 시간의 흐름의 따른 태아의 변화된 모습을 선명한 사진 판넬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판넬을 보며 간략한 태아 변화를 설명한다. 사진 판넬 이외에도 실제크기의 개월 수별 태아의 모습을 도구를 통해서 만져봄으로써 자신의 태어남의 놀라움과 신비한 성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

세부내용

-태동체험

실제크기의 임산부 인형의 배를 만지면 실제 태동과 비슷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느꼈을 느낌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또는 내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를 상상해보며 느낌을 느껴본다.

-임산부 체험

9개월 된 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와 같은 모양과 무게의 임신 체험복을 입어보며 본인이 태어나기전의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잠깐 무게를 느껴 봐도 힘든데 10달 동안 이 무게를 지니고 다녔을 엄마를 생각하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본다.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것과 앞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약속한다.

-아기 안아보기 체험

실제 몸무게와 키 3kg, 50cm의 신생아 아기를 한명씩 안아보면서 미래의 실제 나의 아기라고 생각하고 아기와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 사랑스런 말을 한마디씩 해 보도록 한다. 아기 안는 법을 먼저 알려준다. 아기는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한 쪽 팔 굽혀지는 부분에 아기의 목을 받치고 목을 받친 쪽 손으로 아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아기의 허리와 등을 받쳐준다. 그리고 아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고 만져야 하고 얼굴은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진행자 정보]

★ 임신

배란	양쪽의 난소 중에서 어느 한쪽의 난소로부터 난자가 약 1개월에 1개씩 배출 된다.
	배란에 의해 난소에서 나온 난자는 난관의 끝부분에서 받아들여지고 난관의 운동에 의하여 자궁 쪽으로 보내진다.
수정	정자는 난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2만 번 정도를 움직이며 난자를 공격하여 정자의 머리가 난자로 들어가게 된다. 한 마리의 정자가 들어오면 난자의 화학구성이 변해 다른 정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순간 정자의 꼬리부분은 떨어져 나간다. 자궁으로 들어간 정자는 나팔관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중 단 한 마리만이 난자와 결합하게 되어 수정란이 되고 수정 후 세포분열을 계속하게 된다.
착상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들어가 혈관 속에 달라붙는 현상으로 이때부터 '임신'이라고 말한다. 배란에서부터 수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꼬박 24시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자궁에 착상하는 데는 대략 1주일이 걸린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의 수정란은 이미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가 클지 작을지가 결정되어 있고 심지어 피부색, 머리카락 모양 등 대부분의 유전형질이 결정된 상태다. 수정란 안에 양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3쌍의 염색체가 유전자 배열을 마쳤기 때문이다.
임신	착상에서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을 임신기간이라 한다.

* 임신의 증상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 심리적 변화는 직접 알기 어려우나 신체적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임신을 확인할 수 있다.

- 월경의 정지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월경의 정지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소녀들은 월경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간과할

수 있다. 월경을 한번 건너뛰고 나면 임신 여부를 자가 검사해 볼 수 있다. 이는 수정이 되고 난 후 분비되는 호르몬의 유무를 소변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으로 약국이나 산부인과에서 구할 수 있는 시약에 소변을 떨어뜨려 임신 여부를 쉽고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다. 임신진단시약으로 임신이 판단이 되면, 병원을 찾아 도플러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 입덧

위장 활동이 둔해져서 변비증이 생기기 쉬우며, 오심이나 구토 등 입덧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입덧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며, 머리가 무겁고 오한이 나서 감기로 착각하기도 한다. 입덧은 아침 공복에 주로 나타나는데, 임신에 대한 불안감, 거부감 등으로 올 수도 있으므로, 임신부나 그 가족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머리가 무겁고 후각이 변화되어, 음식 냄새에 유난히 예민해지거나 식성의 변화로 신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보통 임신 3개월 내지 4개월 초경에 사라진다.

- 빈 뇨

방광의 압박으로 소변이 자주 보고 싶어진다.

- 체중증가와 신체변화

임신 5개월이 되면, 체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태동을 느낄 수 있으며, 임신부 자신은 배가 불러지는 것을 알게 된다. 임신이 진전됨에 따라 유방이 커지면서 팽만감을 느끼고, 유두 주위가 갈색으로 착색된다. 또한 복부의 중앙에 갈색선이 나타나는데, 이를 임신선이라고 한다. 이 외에 외음부는 점차 검게 변하고, 임신이 진행되면서 다리 특히 발등 부위에 부종이 생기기도 한다. 임신 말기에는 요통, 신경통, 치통 등을 느끼게 되고, 태아가 커지면서 가슴을 압박하게 되어 숨이 답답해지고, 임신선 등의 피부 착색은 한층 더 심해진다.

* 임신의 진단

- 소변검사

성관계 후, 첫 월경이 없을 때, 임신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한다. 임신의 확인방법은 먼저 임신진단 시약(소변검사)을 통해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변검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전 월경 일에서 6주 이상이 지나야만 어느 정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특히 소변검사는 100% 정확 진단율을 보장하진 못한다. 예를 들어, 자궁 외 임신의 경우는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검사에서는 비 임신(음성(-) 판정)으로 판정되기도 하고, 또한 포상기태(일명 개구리 알 임신, 임신 부산물이나 태반 찌꺼기가 남아 과도한 증식을 함으로 인해 병적 소견을 보이는 양상)의 경우에도 임신으로 판정되기도 한다. 소변검사가 임신의 100% 확진은 불가능할지라도 이전 월경이 있은 지 약 6주 이상에서 소변검사를 함으로써 약 95%정도는 임신여부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 X-ray 또는 초음파 검사

소변검사를 통해 임신인 것으로 판정되었을지라도, 보다 정확한 임신여부(예, 자궁 외 임신, 포상기태 여부 등)를 알기 위해서는 X-ray 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100% 의 확진이 가능하다.

* 태아의 성장과정

태아가 성숙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태아가 성숙하는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한국성문화 연구소 자료 참조).

- 1 단계 (임신 ~ 3개월간)

마지막 월경주기의 첫날부터 12주간 동안으로 신체상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구토 등 입덧을 느끼게 되고,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에 압박이 가해져 오줌이 자주 마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임신 10주** : 태아가 1개월이 되면 팔다리의 흔적이 나타나며 신경조직, 소화, 비뇨기, 피부, 골, 폐 조직의 발생이 시작된다. 2개월이 되면 태아의 신장은 약 2.5cm이며 머리, 턱, 팔의 뼈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임신 3개월** : 임신 12주로 자궁은 주먹크기로 커져서 하복부(치골결합 상부)에서 만져질 수 있다. 이때 태아의 손가락, 발가락의 구별이 가능해지고 남녀를 판별할 수 있다. 뇌의 형태가 대체로 안정되고, 태반을 통하여 산소, 영양분, 노폐물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 2 단계 (3개월, 임신13-26주)

이 단계에서는 구토와 피로감이 사라지고 임신의 징후가 확실해지면서 산모의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하복부가 불러오면서 피부가 갈라지기도 하고(임신선이라고 한다) 성호르몬의 자극에 의해 유방이 커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초유가 분비되기도 한다. 약 18주(4개월)에 접어들면 태동도 느끼기 시작한다.

▸**임신 4개월** : 생식기가 형성되어 성별이 확실해지고, 신장에서 소변 배설이 가능하며 머리카락이 나고 태아가 운동을 시작한다.

▸**임신 5개월** : 태아의 온 몸에 솜털이 나고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때 자궁은 산모의 배꼽까지 올라와 있고, 산모는 태동을 느낄 수 있다.

▸**임신 6개월** : 이 시기에 태아는 눈썹, 손톱 등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피부는 주름이 잡혀있다. 태아의 머리는 제법 큰 편이며 눈썹과 속눈썹을 알아볼 수 있다.

- 3 단계 (3개월, 임신 27주-40주)

신체적으로 다시 불편함을 느끼는 기간으로 산모는 불면증, 소화불량을 겪기도 한다.

▸**임신 7개월** : 임신 28주 말이 되면 태아의 신장은 38-43cm, 몸무게는 1500g 정도가 된다.

▸**임신 8개월** : 임신 32주에 태아는 지문이 생기고 태동이 왕성해진다.

▸**임신 9개월** : 임신 36주의 태아는 피하 지방조직의 형성으로 얼굴과 전신

의 주름이 점차 사라진다.

▸**임신 10개월** : 임신 40주가 되면 태아의 길이는 48-52cm이고 체중은 3,300g 정도이고, 모체 밖에서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하여 신생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전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산모의 연령

산모의 연령 특히 10대의 산모일 경우에는 태아의 성숙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임신의 최적 시기는 23-28세로 이 시기는 첫 생리 후 10년이 되어야 골반기관이 완전히 성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0대의 임신은 태아의 사산, 유산, 미숙아(2,500g이하),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

- 임산부의 영양

태아의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임신 전 엄마의 영양 상태뿐만 아니라, 임신 중의 엄마의 영양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특정 영양소의 박탈은 태아 사망률을 높게 하고, 기형아 출산율을 증가시킨다.

- 투약과 중독물질

임신 중에 복용한 약(감기약, 진통제 등)은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마약중독의 경우는 약물에 중독된 아이를 낳게 하며, 흡연은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인다.

*** 모체 관리**

임신 중에는 태아와 산모를 위한 충분한 영양섭취, 정기적인 검진, 정신적인 안정과 태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서울특별시 교육청).

- 충분한 영양섭취

임신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매식을 자주 하거나 가공 식품을 많이 이용하기 쉬운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식품의 경우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 조미료나 방부제가 첨가되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태아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 중에는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기적인 검진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임신부에게 육체적, 정서적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를 잘 관찰하여 적절한 산전관리를 하지 않으면, 임신 중독증, 출혈, 감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진행되어 모체와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임산부는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질 출혈이나 분비물의 이상, 두통, 시력장애, 오한과 열, 얼굴이나 손발의 부종, 복부와 흉부의 통증, 혈뇨, 계속적인 구토증, 조기 파열에 의한 양수 배출 등의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도록 해야 한다.

- 정신적인 안정과 태교

태아가 모체로부터 받는 열 달 동안의 영향은 “태중 열 달이 스승으로부터 십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출생 이후의 심성이나 기질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모체가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태반을 통과하면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임신을 한 여성은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 출 산

*** 출산의 준비**

임신과 출산은 모체와 태아의 생명이 걸린 매우 중요하며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출산의 준비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느 병원에서 출산할지를 임신초기에 결정하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산전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
임신 말기가 되면 아기와 산모에게 필요한 물품은 목록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병원을 퇴원한 후에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산모와 신생아는 가족의 따뜻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출산의 과정**

- 출산의 신호

분만이 가까워지면 분만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 가지 증상 즉, 전구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전구 증상**으로는 **태아의 하강감, 이슬**(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이다. 이것은 태아가 처져 난막의 일부가 자궁벽에서 떨어짐으로써 생긴다), **잦은 소변**(방광의 압박으로 오줌이 자주 마렵다), **태동 감소, 가진통**(분만이 가까워질수록 진통과 그 다음에 오는 진통 간격이 점점 좁아지며, 10분에서 5분 간격으로 좁아지면 출산이 임박했다는 신호이다)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때에 자궁 경관은 열려 있지 않다. 분만이 가까워옴에 따라 처음에는 자궁수축이 그리 심하지 않은 불규칙 진통이지만 점차 수축이 심한 규칙적인 진통으로 바뀌어 마침내 주기적인 진통의 패턴이 나타난다. 분만 시에는 자궁경부가 확장되어 태아가 산도를 따라 나오게 된다.

- 출산의 과정

출산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성문화 연구소 자료에서 인용)

► **출산 1기(개구기)** : 진통이 시작되어 자궁 입구가 분만이 가능할 정도로 열리는 시기를 말한다. 확장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궁입구 직경이 약 10cm가 된다. 이 시기는 분만기간 중 제일 긴 시기로 보통 8시간 이상 지속되고 초산일 경우 12시간 이상을 끌기도 한다. 자궁수축이 5~10분 간격으로 규칙

적으로 일어난다.

► **출산 2기(만출기)** : 자궁의 입구가 완전히 열려 태아의 몸이 돌면서 산도를 따라 밖으로 나온다. 자궁입구가 완전히 확장되어 열리는 순간부터 모체로부터 태아가 완전히 빠져 나오는 시기이다. 태아의 머리가 산도를 통하여 빠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때 질이 엄청나게 확대된다. 이때 산모가 진통의 주기에 맞추어 요령 있게 복부에 힘을 주어야 출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 **출산 3기(후산기)** : 태아가 나오고 나서 태반이 나오는 시기를 말한다. 대체로 태아가 나오고 5-10분 후에 태반이 나오게 된다.

- 산후관리와 유의점

산후에는 모체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산후에는 분비물이 많아 세균 침입이 쉽고 산욕열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외음부를 하루에 2-3회씩 깨끗이 씻는다. 암적색의 질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것은 태반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니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산모는 임신기간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섭취해야 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분만 4주 이내에 의사의 진찰과 건강지도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젖의 분비를 위해 유방을 잘 풀어주고 청결하게 해야 한다. 성생활은 분만 4-6주 이후에 가능하며, 월경이 없더라도 피임은 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월경 이전에 배란이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 인용).

*** 모유수유- 엄마 젖이 좋은 이유**

- 젖을 먹이면 엄마와 아기 사이가 더욱 친밀해진다
- 엄마젖에는 아기에 꼭 필요한 면역체가 있다. 그래서 모유를 먹는 아기는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설사나 호흡기 감염, 중이염, 당뇨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
- 엄마젖의 성분은 매주, 매일, 매시간, 모유를 먹이는 중에도 변한다. 언제나 내 아기에게 완벽한 상태로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 엄마젖은 아기의 IQ를 높인다. 분유를 먹는 아기보다 IQ가 최소 8-10 높다. 모유성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젖을 물릴 때 아기와 엄마 사이의 피부

접촉 때문이다.

- 엄마뿐 아니라 젖을 먹은 아기도 자라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 산후 자궁수축, 체중조절에 효과적이다.

4) 이성교제 방

내용

이성교제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고 흥미로운 이야기다. 청소년들에게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세부내용

먼저 '이런 데이트 어때?' 코너는 위판에 붙어있는 데이트 그림들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데이트를 골라 아래 판에 붙이거나 내가 생각하는 데이트(청소년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저렴하게 또는 돈 없이 즐길 수 있는 데이트)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도록 한다.
'스킨십. 나는?' 코너는 4개의 판에 각각 '꼭 해보고 싶어', '할 수 있어', '하고 싶지만 나중에', '절대 하기 싫어'주제가 적혀있다. 준비되어 있는 스킨십 그림들을 청소년들 자신이 생각하는 스킨십의 가능한 정도를 붙여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스킨십의 정도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내 데이트 상대가 나와 생각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줄 줄 알도록 한다.

[진행자 정보]

★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와 같이 성적인 만남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책임성 있게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누군가에게 강요 또는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면 성폭력이 되는 것이다.

★ 자기주장 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자기주장 적이지 못한 사람은 흔히 감정을 억제한다. 억제된 감정은 심신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I' message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 상대방과 의견이 불일치 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라.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느끼거나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도록 노력

- '나'라는 말을 사용하라.
자기주장 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나'라는 말의 사용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면 그것을 개인적인 거절로서 흔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기의 입장을 말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결코 알 수 없다.

- '왜'라는 말을 사용하라.
자기주장 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유를 묻는 것을 일종의 도전으로 생각한다. '왜'는 단순히 정보를 좀 더 요구할 뿐이다. 만일 '왜'라는 단어가 너무 위협적이라고 생각 한다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대치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NO”라고 말하는 방법

- “안 돼,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
-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네가 자꾸 강요해서 나는 화가 나.”
-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네가 실제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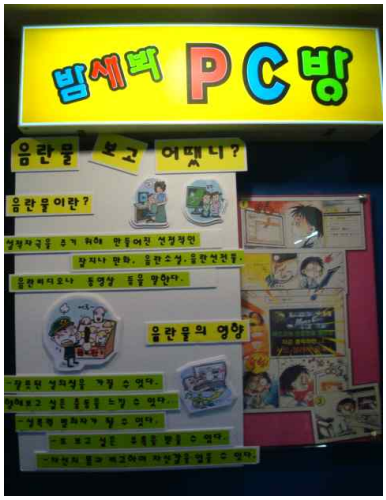
5) 성폭력 방- 음란물, 성폭력, 성매매

내용

청소년을 둘러싼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음란채팅과 음란물 등 상품화된 성문화 속에 너무나 익숙해진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신만의 건강한 성 문화를 정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매매에 관한 실사로 출력된 자료들을 보면서 성매매에 대해 궁금해 하는 청소년들, 자신의 주변에서 성매매의 유혹에 있는 친구들 둔 청소년들, 성매매에 대해 잘 몰랐던 청소년들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세부내용

-음란물



음란물의 정의를 내려주고 음란물을 봤을 때의 느낌을 나눈다.
음란물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음란물은 중독성이 강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성폭력도 자연스러운 성행위로 받아들이게 되고 관계가 빠진 성기 중심의 성행위만을 생각하게 된다. 음란물의 배우의 몸과 내 몸을 비교하여 자신감을 잃게 된다. 자꾸 보다보면 영상의 내용과 실제의 생활에 혼돈이 생겨 실제로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음란물을 만들어서 UCC에 올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인터넷에 한 번 올려진 것은 영구적으로 지울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있으므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 성폭력

성폭력은 강간만이 성폭력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성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모두 말한다. 성폭력은 행위자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본다. 그림 자료를 보며 성폭력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준다. 강간,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특히 수영복 입는 부분을 만지는 것),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것, 디카나 폰카로 다른 사람의 몸을 찍는 것, 바바리 맨 처럼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반응을 가장 좋아하므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함, 사진을 찍으면 똑같이 성폭력을 하게 되는 것, 찍어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은 상관없음),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가 불편하게 몸을 만지는 것(처음에는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고 또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거나 직장의 경우는 신고를 하도록 함.),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것(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 음란 전화를 하는 것(바로 끊어버릴 것) 등 모두 성폭력이다.

요즘은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상대방이 캡쳐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성매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것이 인터넷 성매매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용돈을 준다거나 필요한 것들을 사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만나게 되면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성폭력, 폭력, 금품 갈취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만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아이디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도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

준비된 판넬에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 판넬에 붙이도록 한다.

[진행자 정보]

★ 음란물

* 음란물이란?
성적 자극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선정적인 잡지나 만화, 음란소설, 음란 선전물, 음란 비디오나 동영상 등을 말한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에서는 포르노의 상업적 유통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 음란물의 영향
-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된다.
-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기에 포르노에 중독될 수 있다.
-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 여성을 성에 굶주린 모습으로 강간을 좋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 자신의 몸과 비교하여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 따라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 음란물과 실제상황을 구분하지 못해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다.
- 성적관계를 사랑과 감정이 없는 성기 위주의 성적관계로만 바라볼 수 있다.

★ 성폭력의 개념

-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강간, 강간미수, 근친상간, 성희롱,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 음란 전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한 언행 등을 비롯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행위 성욕 표현 등이다.

★ 또래 간 성폭력 사례

- 말 타기하며 엉덩이 때리기
-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는 것(변태, 섹시 가이, 가슴크기)
- 치마 들추기
- 공중화장실에서(몰래 훔쳐보기, 화장실 앞에서 밀치며 장난치다가 이성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 신체변화(생리, 몽정, 몸무게, 가슴 크기, 생리대 등)로 놀리기

- 기습뽀뽀, 포옹, 뒤에서 껴안기, 무릎에 앉기
- 신체 만지기(엉덩이, 허벅지, 가슴, 성기 등)
-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기
- 음란물(사진, 잡지, 동영상, 야설)을 보여주거나 성행동 흉내 내기 등
- 공공장소에서 이성친구와 스킨십
- 게임벌칙으로 스킨십 강요
- 이성교제 중인 친구들에게 스킨십 강요(특히 D-day)

★ 성폭력 예방책

- 의견존중과 배려
- YES, NO 자기 의사를 분명히
- 책임 있는 행동
- 남이 시켜서 하거나,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지 않기
- 십대의 성행동 기준을 정한다(손잡기, 어깨동무, 포옹)
- 서로의 성행동 기준이 다를 땐 낮은 기준에 맞춘다.

★ 성폭력 위기 상황 시 대처 방법

* 만원 지하철에서 만지는 상황

- 조심스럽게 행위를 중단하라고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을 한다.
- 가방으로 몸을 가린다. 그래도 계속되면 상대방의 몸을 꼬집거나 발등을 밟으면서 주의를 촉구한다.

* 학교 주변에서 성기 노출 시

- 너무 심하게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면 가해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때,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가해자가 먼저 피한다.
- 경찰에 신고한다.

* 강간을 시도하려는 치한을 만난 경우

- 신체적 조건이 열세인 여성이 물리적으로 상황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심하게 저항할수록 치한은 더 더칠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치한에게 “요구에 응해 주겠다.”는 언질을 주면서 상황을 피하는 돌파구를 찾는다.

*** 이상한 음란 전화를 받은 경우**

- 곧바로 끊고 또 다시 걸려오면 전화선을 뽑는다.
- 가해자는 전화를 받는 여성이 전화 내용으로 불쾌해하거나 무서워한다고 느꼈을 때 만족이나 쾌감을 경험하므로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처럼 끊는다.

★ 성폭력(성희롱, 나쁜 또는 애매한 신체접촉 포함)에 대한 대처방안

-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즉시 중지하라고 말하라.
- 가해자의 행위가 불쾌하다고 말하라.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종이에 써서 의사를 전달해라. 가해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불쾌한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알아차리게 해야 한다.
-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즉 선생님, 부모님 또는 성폭력 전담교사와 의논하라. 만일 첫 번째 어른이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면 십대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을 만날 때까지 계속 노력해라.
-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고 중단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절대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경험하는 피해 상황이 곧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 현재의 남자 친구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십대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적어두어라. 차후에 성폭력의 자세한 내용을 기억해야 할 상황이 되면 이러한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된다. 만일 가해자나 가해자의 친구가 이 메일이나 편지쪽지를 보내오면 잘 보관해 두어라.
- 다른 사람이 성희롱이나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노력하고 신뢰하는 어른에게 이야기를 해라. 절대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 학교의 성폭력에 관한 정책을 숙지하고 성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알아내라.

- 만약 학교의 성폭력 전담교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학교 밖의 성폭력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라.

[참고자료]
- 지역사회교육협의회(2005), 청소년성교육전문교사양성자료
- 한국성폭력상담소(2005),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 성폭력 피해 후 대처 방법

-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 믿고 의지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간다.(폭행 후 빨리(가능하면 72시간 이내) 당시의 옷차림으로 몸을 씻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간다. 성교 18시간 이내에는 질 내에서 정자가 100%발견되나, 72시간이 지나면 50%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 임신, 성병 여부 확인, 체모나 정액 등 법적인 증거물을 채취해야 한다.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
- 피해 상황을 기록해 놓는다.(가해자의 인상착의, 세부적인 특징, 사건 경위, 내용, 시간, 장소를 자세히 기록해 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종이 가방에 넣어 보관한다.)
- 112 또는 1366(성폭력 긴급 전화)에 신고한다.
-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 기관에 상담을 의뢰한다.

★ 청소년 성 매매 유입 경로

- 청소년이 성 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로는 주로 사이버 공간, 가출, 인신매매, 친구의 유혹, 전단지를 통해 일어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유입이다.

★ 청소년 성 매매의 특징

- 과거 유흥업소 출입과 같은 고전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화방 및 인터넷 채팅방 등을 통한 은밀함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적 매춘이 자리 잡고 있다.
- 과거의 매춘이 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외 계층의 최후 수단이었다면, 최근의 매춘은 즐기면서 돈도 버는 '향락성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가출 청소년이 모두 성 매매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 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출을 한 상태이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이 성 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 10대 성 매매 종사자들은 고소득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향락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닌데도 인정하지 않는다.

★ 성 관련 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버스나 지하철, 극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연 2회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 사실의 요지를 공개할 수 있다.

*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 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 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성을 파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선불금)은 무효로 한다.
- 성 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 성 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으로 성 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 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보를 등록하도록 한다.
  성명/ 생년월일/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사진(등록 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
- 취업제한
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교육

★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 남자의 성욕은 자제할 수 없고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인간의 성욕은 남녀가 차이가 없다. 단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성은 적극적이어야 하며, 남성다운 것은 성욕이 강한 것이며, 강한 남성은 성적 욕구도 많고 또 이를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성적 욕구의 표현은 어떤 조건 하에서 성장했는가, 성을 다루는 법을 어떻게 학습했는가, 성적으로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성이란 본능처럼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격의 표현이 되도록 삶에 있어 가공되고 틀이 잡혀가는 것이다.

아내가 없거나 밀입국한 외국노동자들 중 성욕을 해소해야 하는 남성들은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한 개인의 욕구를 위해 타인의 인격을 유린하고 짓밟아도 되며, 성매매 피해 여

성에 대한 인격적 종속을 바탕에 깔고 있어 심각한 남녀 불평등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사람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다.

***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남성의 성욕은 해소해야만 하며 따라서 성매매를 통해서라도 풀지 못하면 거리로 뛰쳐나가 아무나 강간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폄하하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는 남성의 성욕은 절제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성행위는 성기가 아니라 대뇌가 조정한다는 면에서 성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 종사 여성의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성폭력 발생비율도 낮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팽배할수록 폭력을 당연시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며 성폭력과 성매매의 발생비율이 높다.

***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자발적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은 막다른 골목길에서 어쩔 수없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이 있고 그 속에서 최선의 삶을 위한 선택을 했을 때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때로는 집과 학교에서 도망쳐 나와 다양한 대안도 없고,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터전을 가져 본 적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발'이라는 개념은 합당하지 않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는 성 산업의 매개자가 도사리고 있다. 친한 친구나 선후배, 남자 친구와 그들의 친구, 무차별로 살포되는 생활정보지 등 10대의 일상적 연계망을 통해 수없이 많은 성적 거래를 제안 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순수하게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성매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성매매는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야만 하며 이는 결국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공포와 두려움, 폭력을 전제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건강한 노동의 대가로 벌지 않은 돈은 대체로 헤프

게 쓰이기 쉽다.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청소년이 없다는 점에서 보아도 돈을 버는 방법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성매매를 그만두면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

성매매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한 여성들의 피해를 밝히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강간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대부분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 폭력, 강간의 피해를 경험했으며 포르노비디오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극심한 피해를 남기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범죄이다.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 외에도 간과할 수 없는 피해는 이중자아, 건강한 정체성 확립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즉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지만 성 매수자와의 성행위를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은 '지금 이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거나 '지금 이 일은 잠깐 동안 눈 딱 감고 하는 일이며 나는 나중에 근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성관계야'라며 행위자로서의 자신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미래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사랑의 행위라고 할 때 이러한 자아분리감은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피해 중의 하나인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몇 번만 하고 돈을 벌면 그만둬야지 해도 대부분 청소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정 상황, 쉽게 돈을 벌었던 경험, 쉽게 소비했던 습관, 그리고 드물지만 습관화된 쾌감에 대한 충동 등으로 성매매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렵고 이는 호기심이건 필요에 의해서이건 성매매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음을 나타낸다.

***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처벌받는다.**

성매매는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여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받는다. 형법 제 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형사 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 하도록 되어 있다.

*** 남성도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을 사는 것처럼, 남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와 변태행위를 하는 곳을 호스트바라고 한다. 아직까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여성에 비해 많지 않지만 남성 역시 경제적인 이유와 만연된 성 산업 그리고 왜곡된 성 가치관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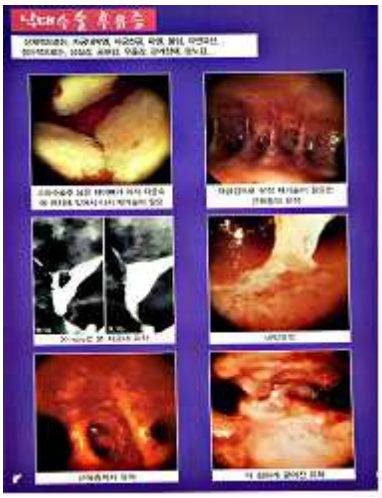
성 매수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여타 중독의 폐해처럼 그 심각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중독성과 습관성이 강해 다시 성매매 업소를 찾게 된다.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도 크지만, 죄책감이나 불안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조루,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만족을 못 느끼는 증상 등)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여성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여성'과 '돈을 지불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되는 여성'으로 이분화 시키는 사고를 더 심화시킨다.

*** 공창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공창제는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성매매 행위를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써, 성 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포주에 의한 착취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공창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인 노예매춘을 없애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해 주며, 공창이 아닌 지역에서는 모든 여대생, 주부, 학생들의 성매매를 확실하게 없애자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착취·폭행 등의 범죄를 근절하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이 보호된다는 주장은, 성매매 경험 자체가 여성에게 어떠한 심리적, 육체적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살인·강도와 같은 범죄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고작 그 피해자나 돕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6) 낙태, 성병 방 - 낙태, 성병



내용

이 공간은 중학생까지 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사진들이므로 고등학생 이상만 들어온다. 낙태의 사진과 낙태의 후유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신체적인 후유증 이외에도 정신적인 후유증과 신체/심리적인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낙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된 성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성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진행자 정보]

★ 인공 임신 중절의 개념

인공 임신 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모자 보건법 제2조 8호). 인공 임신 중절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 태아에 심각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을 때,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일 때 행해지는 경우로, 이를 '치료적 유산'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 임신부의 요청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를 '선택적 유산'이라고 한다. 인공 임신 중절의 종류는 임신의 시기와 태아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 임신 중절 방법

* 외과적 방법

임신 1기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진공흡입법(Vacuum aspiration)이다. 진공흡입 법은 자궁경부를 넓혀(보통 국소 마취를 하고) 흡입기를 자궁 내부 안에 넣는 것이다. 임신의 어떤 생산물도 자궁에서 제거된다. 이런 과정은 임신 1기 동안만 할 수 있다.(임신 후 16주 이내)

덜 일반적인 방법은 D&C(Dilation&Curettage, 확장&소파)라 불린다. D&C에서는 흡입 대신 소파기를 사용해서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조직을 제거한다. 이 방법은 자궁 경부를 더 많이 넓혀야 하고 통증과 출혈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시행될 때, 임신 1기의 임신 중절은 지극히 안전한 의료적 시술로 여겨진다. 가능한 합병증은 감염, 자궁경부나 자궁의 외상이나 과다출혈이다. D&C는 진공흡입법보다 더 자궁이나 자궁경부 손상의 위험이 높다.

임신 2기에는, 자궁경부를 점차적으로 확장시키고 D&E (Dilation & Evacuation, 확장과 배출)가 시행된다. D&E는 위에서 설명된 D&C와 진공흡입 법을 결합한 방법이다. 전형적으로, 이 방법은 임신 13주에서 16주 사이에 사용된다. 임신 2기 임신 중절의 합병증은 임신 1기 임신 중절과 비슷하나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합병증의 가능성 때문에, 임신 중절을 시술받는 환자가 발열, 오한, 통증, 경

련, 복부 팽만, 질 분비물, 출혈과 같은 잠재적 문제의 경고 증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료적 임신 중절**

위에서 설명된 수술적 방법과 대조적으로, 의료적 임신 중절은 임신 중절을 유발하는 약물과 함께 사용한다. 두 방법 모두 임신 초기에 사용되며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자궁수축제)과 미페프리스톤(RU-486, 프로게스테론 길항제) 또는 메쏘트렉쎄이트(자궁 외 임신에 사용되는 약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약물 배합은 수술적 임신 중절과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다. 의료적 임신 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이 방법이 침습적인 수술-대부분의 여성에게 힘든 시간을 주는-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보고했다. 다른 사람은 약물로 인한 출혈, 경련, 오심이 더 심했다고 했다.

수술적 임신 중절이 더 안전하지만, 자궁에 구멍을 내거나 그로인한 감염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의료적 임신 중절은 이런 특별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적 임신중절은 다른 잠재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은 임신 첫 7주내에 95%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임신 1기 이후에는 수술적 임신중절보다 못하다. 의료적 임신 중절을 선택한 여성들은 의사를 몇 번씩 만나야 하고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 알 때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

임신 중절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은 외과적 임신 중절과 의료적 임신 중절 둘 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래야 스스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

★ 인공 임신 중절의 위험과 유의 사항

- 임신 중절은 다른 외과적 수술과 달리 육안으로 보지 않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한다.
- 마취를 시행할 때 그 약제 투여에 따라 구토가 일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의 폐쇄로 질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금식 및 전문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수술 후에는 충분한 안정과 적절한 치료 및 약제의 복용으로 2차 감염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방지해야 한다. 수술 후에는 병원을 재방문하여 후유

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 받고 자궁 수축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인공 임신 중절의 대책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그러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은 철저히 예방되어야 하며, 인공 임신 중절이 한정적인 범위에서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또, 인공 임신 중절을 했을 때, 한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데서 느끼는 여성의 죄책감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무계획적인 임신은 피해야 하고, 임신 중절 수술이 모체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입양 기관을 찾아 사전에 입양을 의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인공 임신 중절의 일반적 문제점

* **법률적 문제** : 형법에서는 낙태를 예외 없이 위법으로 간주함.

* **윤리적 문제** : 태아 생명에 대해 살인이라는 죄책감

* **의학적 문제** : 임신 중절이 산모의 건강에 매우 큰 위험을 줄 수 있고, 합병증 또한 크다. 합병증으로는 과다 출혈, 감염, 생식 기관 및 내부 장기 손상, 약제에 대한 부작용, 불완전 유산 등이다. 또, 중절 수술을 되풀이하면 하복통이나 요통, 월경 불순, 월경 곤란, 임신 공포증 등 성생활에 이상을 초래 할 수 있다. 또, 다음 임신 시 습관성 유산이나 조산을 하기 쉽고, 자궁외 임신, 전치 태반, 태반 유착을 초래할 수 있다.

* **경제적 문제** : 경제 활동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 **기타 문제** : 성 감별 인공 유산으로 발생하는 출생 성비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점

★ 10대 인공 임신 중절이 갖는 문제점

확장기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자궁 입구를 확대시킬 경우,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궁을 확대시키는 일이 어렵다. 특히, 중·고등학생일 경우 아직 몸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궁 입구를 열기가 어렵다. 무리

하게 열려고 할 경우 자궁 입구가 찢어지거나 심하면 천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술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 무허가 시술소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을 받는 경우와 수술을 받고 그대로 학교에 출석하는 등 사후 관리를 못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수술 후에도 자궁 속에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병원 진료와 함께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하며, 곧바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 외음부 질 염

외음부가 가렵거나 붓고, 냉이 많고, 질이 아프거나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가려운 증상과 냄새가 나며 누런 화농성 고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질 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 외음부 질 염의 원인은 주로 외음부의 불결한 상태와 비위생적인 관리가 그 원인이다. 대변을 보고 난 뒤에 잘 씻지 않거나, 옷을 꽉 끼게 입거나,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이나 또는 생리대를 착용함으로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잦은 자위행위, 피임약의 복용, 항생제 및 항균제의 과다한 복용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그러한 증상이 생기면 원인이 될 만한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여성의 생식기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서울 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실, 2000).

* 질 염 예방법

- 대변을 닦을 때는 항상 앞에서 뒤쪽으로 닦는 습관을 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항문의 세균이나 이물질들이 질에 전달될 경우 질 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 가급적 면 팬티를 입는 것이 좋다.

나일론이나 합성섬유 팬티는 열과 습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박테리아 생존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팬티스타킹이나 꼭 붙는 바지는 가급적 오랜 시간 입지 않는 것이 좋다.

- 너무 자주 질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질 내부를 세척하는 것을 피하자.

질은 정상적으로 많은 종류의 세균 총을 가지고 있는데, 잦은 질 세척으로

인해 항상 자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세균 총을 씻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항생제를 필요 없이 과용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으로는 몸에 이로운 균이 질 속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면서 병원성 균이 질 속에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의 남용은 세균총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 질에 불쾌감을 주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형태의 성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다.

- 항문성교 후에 바로 질 성교하는 것을 피하라.

이것은 항문의 박테리아를 질에 감염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다.

*** 생리 중 건강과 위생관리**

월경 중에는 모든 것이 귀찮고 몸이 무겁게 느껴져 몸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월경 시에는 세균 등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청결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생리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건강과 위생관리를 한다.

- 공중목욕탕이나 수영장 이용을 피하고, 가정에서 가벼운 목욕이나 샤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생리대는 자주 갈아주고 갈 때마다 외음부를 씻는 것이 좋다. 씻을 때는 손을 따뜻한 물로 세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는다. 그런 후, 외음부를 씻는다. 단, 손가락을 질속에 넣거나 물을 질속에 넣지 않도록 한다.

-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도록 한다.

세균성 질 염	냉, 대하증과 함께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세균성 질 염이 있는 경우에는 골반 염을 앓을 확률이 높으며, 임신 중에 세균성 질 염을 앓게 되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 막에 염증이 생겨 양수가 조기에 터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조산을 하게 되어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트리코모나스 질 염	기생충의 일종으로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성병으로 물처럼 흐르는 다량의 냉으로 팬티가 젖거나 악취가 나며, 질 입구가 따끔거리거나 가렵고 전파력이 강력하다. 감염된 파트너와 한번만 관계를 해도 70% 이상이 감염되며 남성에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여성에게만 나타나는데 치료는 양쪽 다 받아야 한다.
칸디다성 질 염	곰팡이의 일종으로 흰색의 걸쭉한 냉과 심한 가려움증을 들 수 있으며, 냉의 형태가 비지 또는 두부를 으깬 것, 혹은 치즈 같다.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임산부나 당뇨병 환자에게 잘 생기는 병이다.
염증성 질 염	염증성의 상피세포가 심하게 떨어져 나오면서 고름 같은 냉이 많이 생기며, 질과 외음부의 화끈거림, 관계 시 느끼는 통증, 냉의 양이 많아지는데, 염증성 질환의 원인은 분명치 않다.
위축성 질 염	폐경이후의 여성에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결핍으로 인하여 질 벽이 얇아지면서 다량의 냉과 성교 통을 유발하며 질 상피 세포의 위축으로 인해 건조감이 생기고 성관계후에는 소량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 성병

주로 성기접촉, 입, 항문 등 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나 사면발이 처럼 속옷, 카펫, 수건으로 전염되는 것도 있다.

* 성병과 성인성 질환의 의미

성인성 질환이란,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을 총칭하는 말이다. 성병은 그 선행 요인이 거의 대부분 성행위인데 비해서, 성인성 질환은 감염 경로가 주로 성행위이지만 때로는 섹스 이외의 루트로도 이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병과 구분된다. 따라서 어휘적 의미로는 성인성 질환이 성병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성인성 질환이라 함은 임질, 매독을 포함하여 연성 하감, 서혜부 육아종, 성병성 림프 육아종, 비임균성 요도염, 음부 포진, 첨규 콘딜로마, 트리코모나스증, 칸디다증, 비특이성 요도염, 옴, 완선, 간염, 에이즈 등을 모두 포함하며, 요즘은 성병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대신 성인성 질환이란 용어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

종류	증상
매독 (박테리아)	매독은 직접 특히 점막을 통해 전염되며 1차적으로 매독 균이 침투한 후 10-90일 경에 침투한 피부에 궤양이 생기며 통증은 없다. 매독 균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는 2차적 단계에서는 회음부에 둥근 반점이 불거져 나오고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임파선이 붓게 되는데 가렵거나 아프지는 않다. -증상은 없고 피검사로만 알 수 있는 잠복기 매독도 있다- 1, 2 차 잠복기 매독시기에는 치료가 쉬우나 모르고 있다가 중추 신경계까지 매독 균이 침범하면(3기 매독) 신경조직이 손상될 뿐 아니라 치료가 매우 어려워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치료 후 1-2년 동안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 재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치료해야 한다.
임질 (박테리아)	가장 흔한 성병이며, 임질 균은 점막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세균으로 건조한 곳에서는 죽기 때문에 수건, 손잡이 등을 통해선 전염이 안 됩니다. 남성은 성 접촉 후 2-10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소변 시에 녹색을 띤 황색고름이 나오며 따끔거립니다. 여성의 경우 소변 볼 때에 따끔거리거나 고름 같은 냉이 나오기도 한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피부나 점막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1차 감염 후 잠복 기간은 4-7일 정도이며 전신 무력감, 편두통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다가 감염된 피부와 점막에 수포들이 생겨 빠르게 커지며 따가움, 가려움과 통증이 심해진다.
곤지름 (바이러스)	성기나 항문 주변에 닭 벼슬 모양으로 번지는 사마귀이며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성 접촉에 의해서만 전염된다.
에이즈 (바이러스)	암보다도 무서운 성병으로, 성행위는 물론 수혈, 면도기, 의료종사자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감염되며 HTLV Ⅲ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6개월-5-8년까지의 다양한 잠복기간를 거친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입맛이 없고 체중이 갑자기 감소되며 피곤하다. * 밤에 잠잘 때 땀을 흘리며 열이 난다. * 목,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붓는다. * 입에 비정상적 붉은 반점이나 흰 반점이 생긴다. * 원인 없이 설사증세가 있다. * 병에 대한 면역성을 잃게 되어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사면발이 (이)	몸에 기생하는 이의 일종으로 주로 음모에 기생하며 대부분 성 접촉에 의해 전염되며 옷, 이불 등을 통해서도 전염된다. 증상은 심한 가려움증이다.
첨규 콘디롬	성기나 항문 주위에 사마귀나 혹이 생기는 병으로 감염된 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성기나 항문, 요도 부위에 표면이 습한 적갈색의 꽃양배추 모양의 사마귀가 커지면서 커다란 혹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므로 조기에 치료를 받아서 제거하여야 한다.
옴 (진드기)	피부나 울룩불룩하게 부어올라 몹시 가려운 병으로 옴 환자의 이불, 옷 또는 환자와의 피부 접촉, 특히 야간의 접촉으로 전파되며, 성인 남녀에서는 성행위에 의해 옮겨지는 성인성 질환의 하나다.
전염성 연속종	콩알만 한 흰색 물집이 줄이어 생기는 병으로, 흔히 물 사마귀라고 하는 병으로 성 접촉 시에 피부끼리의 밀접한 접촉에 의해 외음부에 발생한다.

7) 피임

내용

성관계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로 내가 왜 지금 이 사람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냥 충동 때문인지 호기심인지 정말 사랑해서인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계속 관계가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닌지, 만약 헤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셋째로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넷째로 성관계 후 성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성병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걸리게 되는지 예방법은 알고 있는지 만약 성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한다.
다섯째로 만약 임신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
임신이 되면 낳을 것인지 지울 것인지, 낳는다면 키울 것인지 입양을 보낼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여섯째로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임을 해야 하는데 피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된 피임방법을 알고 있는지 나에게 맞는 피임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충족이 돼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피임법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결혼한 부부도 아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피임을 해야 한다.
피임법에는 경구용 피임약, 자궁 내장치, 살정제, 콘돔, 사후 피임약 등이 있다.
먼저 자궁 내 장치는 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만 사용한다. 경구용 피임약은 여성이 먹는 것으로 21알이 들어있고 성관계를 하기 전 달 생리 시작 일부터 먹기 시작해서 21알을 먹고 7일간 쉬어주는데 쉴 때 생리를 하게 된다. 경구용 피임약은 하루라도 빼먹으면 피임효과가 없고 하루를 빼먹었을 때는 다음날 2알을 먹으면 되는데 피임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살정제는 성관계하기 15~20분 전에 여성의 질 안에 삽입하는 것인데 질 안을 강한 산성으로 만들어서 정자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임효과가 좋지 않아 다른 피임법과 병행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피임법이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에 먹는 것으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나 콘돔이 찢어졌을 경우 등 긴급하게 피임을 하지 못했을 경우 먹는 것이다. 72시간 이내에 먹어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먹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떨어진다. 사후피임약은 부작용이 심한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콘돔은 남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일부의 성병도 예방이 가능하고 피임효과가 가장 좋아서 많이 사용하는 피임법이다. 콘돔은 사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따라서 피임의 효과가 달라진다.

직접 시연: 콘돔은 남성의 성기가 발기가 되자마자 삽입하기 전에 씌워야 한다. 남성의 성기가 발기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한 두 방울의 액이 나오는데 쿠퍼액이라고 하고 그 안에도 정자가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므로 발기가 되자마자 콘돔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콘돔은 고무제품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찢어질 수 있으므로 포장을 뜯기 전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콘돔을 꺼내서 손가락에 올려놓고 내려가는 방향을 맞춘다. 끝에 볼록 나와 있는 부분은 정액받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공기를 빼줘야 사정할 때 터지지 않으므로 두 번 꼬아서 공기를

빼주고 성기 끝부분부터 씌워서 성기뿌리부분(몸과 닿는 부분)까지 쭈욱 내려준다. 끝까지 내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도중 콘돔이 빠질 수가 있다. 성관계가 끝나고 콘돔을 뺄 때는 사정하자마자 빼야한다. 발기된 남성의 성기는 사정하고 나면 다시 작아지게 되는데 작아지고 나면 성기만 빠지고 콘돔은 질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면 콘돔안의 정액이 다시 흘러 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정하자마자 성기와 콘돔을 함께 잡고 빼야한다.

(청소년들 중 몇 명에게 모형성기에 직접 해보도록 한다.)

[진행자 정보]

★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위한 피임의 한계

대부분의 십대는 성적으로 능동적이 되고자 계획하지 않으며 첫 성관계 경험을 예견하지 않는다. 첫 성관계시 피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임신 경향이 높은 것은 바로 피임 실천이 낮기 때문이다. 또 십대의 반수 정도는 피임을 하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첫 임신의 반수는 성관계 경험이 있은 지 첫 6개월 안에 일어나며 첫 번 째 달에 20%의 십대가 임신을 경험한다.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에 대한 교육은 남성책임에 집중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사랑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성적 가치관의 변화에 비해 피임을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중적 규범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피임을 실천하는 한계 요인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첫째로 젊은 특히 십대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할 때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미처 피임법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험이 있는 십대의 성관계는 분위기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둘이만 있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황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적 행동이 강요될 때 피임을 하기가 어렵다. 십대의 성적 관계는 항상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 성적 동의의 정확한 기준과 경계를 그리는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성관계보다는 상대방이 절실하게 원해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등 강제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사회문화적 압력을 들 수 있다. 콘돔이나 피임약 등의 피임도구를 산다거나 가지고 다닌다거나 또 서로 사용하자고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그 사회의 문화적 거부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피임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자신이 성적으로 헤프거나 경험이 많거나 또는 성관계를 갈망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한편으로는 성을 즐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기와 의지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미혼모에 대한 조사에서 미혼부의 관심과 개입의사가 지극히 낮으며 대부분

미혼모들이 미혼부와 피임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미혼모 스스로 피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임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압력과 모순적인 감정들이 피임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정작 실천하기는 어렵게 만든다.
피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적 행위를 예견해야 하며 성관계를 계획해야 하며 피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 피임법의 종류와 사용에 대한 교육

피임의 필요성과 위에서 언급한 피임실천의 장애에 대해 강조한 뒤 피임약과 콘돔, 루프 등 세 가지 피임법의 편리성, 효과를 설명한다. 피임법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응용될 수 있지만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강조하며 루프의 경우는 병원에서의 진단과 시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콘돔 사용법을 시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화, 즉 왜 콘돔사용법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콘돔사용에 대한 설명 시 발기되자마자 끼우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질외사정은 완전한 피임법이 아님을 강조한다. 음경이 발기되었을 때 한 두 방울 정도 나오는 쿠퍼 씨 분비물 속에는 수백만 개의 정자가 포함되어 있고 또 사정을 하면서 음경을 빼는 과정에서 정액을 일부 질에 흘릴 수 있어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아니다.
콘돔을 만지는 것을 꺼려 할 수도 있으며 장난스럽게 시연할 수도 있으므로 첫 느낌 등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콘돔은 약국, 편의점, 대형 마트, 자판기 등을 통해 살 수 있지만 십대가 콘돔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각 상황에서 어떻게 콘돔을 구입할 수 있을지 표현해 보도록 한다.

	방법
월경주기	배란일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성생활을 자제하거나 콘돔, 질외사정, 살정제 등 일시적인 피임법을 이용하여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배란은 다음 생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거꾸로 14일(다음 생리 12-16일

법	전) 전에 이루어진다. 배란일을 전후로 약 5일씩 주의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배란일은 잘 체크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방법이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질외사정법	성관계도중 남성이 절정에 이르러 사정하기 직전에 음경을 질에서 꺼내 질 밖에서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정자의 일부가 질 안에 누출될 수도 있고 질 밖이라 하더라도 외음부나 대퇴부처럼 질 가까운 부위에 사정된 정액은 질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고 사정 전 나오는 쿠퍼씨액에 정자가 있으며 남성의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므로 실행도 어렵고 실패할 확률도 높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점액관찰법	배란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희뿌옇고 끈적거리는 점액이 분비되기 시작하여 배란일이 가까워지면서 생계란 흰자위처럼 맑고 투명하고 길게 늘어나고 매끄러워지다가 다시 혼탁하고 끈적거리는 점액으로 변하면서 건조해지는 질 분비물의 변화를 기초하여 피임하는 방법이다. 점액이 나오는 기간과 그 후 3일간이 임신 가능한 기간이다.
페미돔	여성용 콘돔으로, 여성의 질 벽 모양에 따라 고안된 고무주머니로 남성에게서 나온 정액이 자궁 경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질과 외음부를 보호하며 세균의 침입을 막는 기능을 한다. 성교 전에 미리 삽입할 수 있어 성적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 적고 사정한 뒤에도 계속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기구를 삽입할 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성교 후 6-7시간 동안은 정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대로 두었다가 빼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되고 있지 않다.
콘돔	값싸고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성교할 때 남성의 성기에 씌우는 얇은 주머니로, 이 안에 사정을 하여 정자가 여성의 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피임의 도구일 뿐 아니라 에이즈와 헤르페스를 포함한 성병의 전파를 막는 도구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된다. **콘돔의 착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성기가 발기되어 삽입하기 전부터 착용해야 하고 끝부분의 돌출부위를 살짝 비틀어 납작하게 하여 공기를 뺀 후 사용해야만 콘돔이 찢어져 피임에 실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정이 끝난 후 콘돔이 빠져 질 내로 정액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임 방법으로 특히 연령이 낮은 층에서 선호되고 있다.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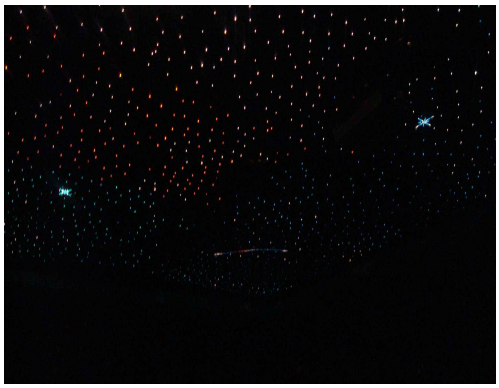
	* 콘돔 사용법 ① 포장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② 정액받이를 두 번 비틀어 공기를 뺀다. ③ 음경이 발기가 되면 바로(삽입 전에) 씌운다. ④ 사정 후에는 삽입을 얕게 한다. ⑤ 사정 하자마자 콘돔이 질 속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콘돔과 음경을 함께 잡고 정확히 빼도록 한다. ⑥ 두 번째 발기 시에는 새로운 콘돔을 씌운다. ⑦ 콘돔의 품질을 확인한다.
미레나	황체호르몬이 함유된 실리콘 막을 씌운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T자 모양의 작은 자궁 내 시스템 장치로, 경구 피임약과 루프의 장점을 결합한 피임법으로 미레나를 자궁 안에 넣어두면 약 5년간 황체호르몬이 매일 극소량 자궁 안에 퍼져 피임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미래나의 작용) ① 자궁경부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어 정자가 난자와 수정하기 위해 자궁내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② 자궁과 나팔관 내에서 정자의 정상적인 이동을 방해한다. ③ 주기적인 자궁내막의 성장을 감소시켜 생리가 적어지고 생리기간이 짧아진다. 피임이 되는 기전은 황체호르몬에 의해 자궁경부점액을 끈끈하게 하여 정자가 난자에 접근해서 수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자궁과 난관 내에서 정자가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황체호르몬이 주로 자궁 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자궁내막이 얇게 되어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을 막고 더불어 생리 량이 줄어들고 생리기간도 짧아진다.
루프	자궁 안에 구리가 감긴 작은 기구를 삽입해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피임법으로 시술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하며 자궁 크기와 모양에 맞는 형을 골라 삽입해야 합니다. 흔히 구리가 감긴 작은 기구로, 이 기구를 여성의 자궁 안에 넣어서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피임 방법입니다. 자궁 안에 설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보통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보통 생리가 끝난 직후에 산부인과에서 장치 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장치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아주 간단히 끝난다. 부작용으로 삽입직후 복통과 출혈이 있을 수 있고, 후에 생리통이 생기기도 한다. 월경 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 15% 정도에서 과도한 월경 량으로 인하여 루-프를 도로 빼기도 한다. 염증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하나 루-프에 동을 입히기 때문에 루-프 삽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궁은 무균상태가 되며 2-3달 이후 생기는 염증은 성병으로 보아야 한다. 골반염 등의 염증이 판명되면 루-프는 제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루-프의 경우도 1년간 실패율이 3%정도이다.
누바링	자궁 내 삽입하는 은 링 형태의 플라스틱 도구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천천히 분비해 임신을 조절하는 기구이다.
경구용 피임약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한 약으로 수정이 될 수 없게 난자의 배출을 막고 자궁 경부점액의 점도를 끈끈하게 유지해 정자의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수정란이 착상하는데 필요한 자궁내막의 증식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먹는 피임약은 복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며, 전문의와 상담한 뒤 생리 주기에 맞춰 매일 복용해야 한다.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피임약은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피임약은 월경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1정씩 21일간 복용하고 다음날부터 7일간은 약의 복용을 중단한다. 7일간의 쉬는 중에 월경을 하며 피임효과가 계속 유지 된다. 계속 피임을 원할 경우에는 월경 날짜와 관계없이 쉬는 7일 다음 8일째부터 다시 피임약의 복용을 시작한다. 피임을 원하는 한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며 다시 아기를 원할 경우에는 약의 복용을 중지하면 임신을 하게 된다. 먹는 피임약은 매일 1정씩 잊지 말고 복용하여야 하며 만약 복용 기간 중에 복용을 잊을 경우에는 피임을 실패하게 된다. *** 부작용** ① 피임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인데 때로 심한 경우도 있으나 복용 시간을 취침 전으로 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② 유방이 팽팽해지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

	은 모두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복용시작 2-3개월 후면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③ 피임약을 먹다가 끊었을 경우 일시적으로 배란 및 월경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90%는 3개월 이내에 배란이 재개되며, 혹 3개월이 지나도 무배란, 무 월경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병원에서 배란 약을 처방함으로써 간단히 해결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응급피임법	배란기로 짐작되는 시기에 피임을 못했거나 콘돔이 찢어지는 등 피임실패로 임신이 우려될 때 성관계 뒤 응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고용량의 복합 호르몬제인 응급피임제를 복용해 배란과 착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주된 작용은 자궁내막을 변형시켜 착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성폭행이나 피임실패자처럼 응급 시에만 써야 하며 복용 전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2알(1알 짜리도 나옴)을 복용하는데 임신을 약 75% 예방 할 수 있으며, 한차례 관계에 한해 효과가 있다. 여러 번 사용할수록 임신 예방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만 커진다. 부작용으로는 월경주기 장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복부통증이 있고 유방암, 뇌졸증, 다리와 폐의 혈전,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심한 편두통 등이 있을 때는 사용해선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응급 피임약은 평생 몇 번만 먹어야 할 만큼 약효가 강하다"고 충고한다.
질정제/살정제	성교 전 약물을 질 안에 삽입해 정충의 활동을 저하시키고 사멸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제가 질 내에 깊이 삽입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녹기 전에 사정되었을 때, 체위를 변경하면서 유출되었을 때, 살정제를 삽입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관계를 가졌거나 성교 시간이 길었을 때는 피임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성교 약 10분 내지 한 시간 전에 질 깊숙이 삽입 혹은 주입해야 하며 (질 좌약식은 삽입, 젤리형은 주입기로 주입) 성교 반복 시에는 다시 한차례 삽입 혹은 주입해야 해며 질 좌약식은 질 안에서 녹는 시간을 감안해야 효과적이다.
이식형피임	성냥개비 사이즈의 기구를 팔 안쪽에 삽입 시술해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배출해 배란을 막는 것으로 한번 이식하면 3년의 피임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제거 시에는 바로 가임능력이 회복된다. 임플라논이 이식된 후에는 임플란트가 느껴지지 않지만 손으로 이식된 곳을 만져보면 만져진다.

제/임플라논	임플라논 임플란트는 황체 호르몬을 함유하고, 여기에서 매일 극소량의 황체호르몬이 배출되는 것으로 월경주기 제 1일에서 5일 사이에 이식하는 경우, 이식한 첫날부터 바로 피임효과를 갖게 된다. 3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즉시 피임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서서히 피임효과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3년 후에는 기존 임플라논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임플라논 제거 후에도 피임을 계속 원할 경우 새로운 임플라논을 제거와 동시에 이식하거나, 다른 피임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패치	피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3주간 효과가 지속되며 3개의 패치가 들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다.
난관수술	난관을 폐쇄하는 수술로 사정된 정자가 난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임신을 방지하는 수술입니다. 평생 동안 피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30-40분 정도이다.
정관수술	고환에서 생산되는 정자의 통로인 정관을 폐쇄하여 정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막는 방법으로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10-20분 남짓으로 수술도 간편하다.

8) 별보기



내용

불을 끄고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소중함,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는 마지막 코너다.

세부내용

-별보기 멘트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물질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먼저 눈을 감아주세요.(불을 끄고 별 조명을 켜고 눈을 뜨게 한다.)
굉장히 아름답죠. 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이 많은 별 중에 자기 별을 하나씩 골라보세요. 만약 내 별 하나만 있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별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아름답게 빛날 수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은 살아갈 수 없어요.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내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나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중한 사람 이예요.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모두 소중하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과 배려를 한다면 나 또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모두 모두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하나하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멋진 청소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부산광역시 교육청 청소년 성교육 지도안
성의 과학사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
경기도 교육청. '성,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한국 학교 보건 교육 연구회 서울시지회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http://www.moleg.go.kr)
한국 여성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입장 바꿔, 문화 바꿔'
용인 성폭력 상담소 '십대를 위한 아나보기 성교육'
한국 여성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대한 에이즈 예방 협회. 레드리본
대한 에이즈 예방 협회(http;//www.aids.or.kr)
대한 에이즈 예방 협회 인천광역시 지회(http;//www.icaids.org)
중앙일보(http://www.joins.com)
경기도 교육청 '성폭력 피해·가해 학생 교육 매뉴얼'